

눈으로 입으로 몸으로 즐길 수 있는 삿포로의 가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삿포로시 국제교류원 손민지입니다. 한국 내에서도 남쪽에 위치하여,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눈이 거의 쌓이지 않는 한국의 제 3 의 도시, 대구광역시가 제 출신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을은 어떤 계절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삿포로의 가을은 일본의 다른 도시들보다도 그 기간이 짧고, 가을이 왔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썸이면 어느새 눈이 내리기 시작하므로, 짧기 때문에 더 마음껏 즐기고 싶은 계절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다양한 삿포로의 가을 매력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눈으로 즐기는 삿포로의 가을입니다. 삿포로의 단풍은 9 월 하순부터 물들기 시작하여, 매년 가장 절정인 시기는 10 월 초~중순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단풍 명소는 조잔케이입니다. 조잔케이라고 하면, 온천이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카누나 승마 등 활동적인 스포츠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특히 승마는 처음해보는 분도 먼저 레슨을 받은 후에 지정된 원내에서 말을 탈 수 있으므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뛰니뛰니해도 바깥활동으로 지친 몸을 쉬게 하는데는 온천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노천온천 안에서 편한 마음으로 온천을 즐기며 바라보는 아름다운 단풍은 마치 자신이 풍경화 속에 있는 듯한 착각마저 불러일으켜, 눈도 몸도 힐링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입으로 즐기는 이벤트도 개최됩니다.

9 월 초부터 약 1 달간, 오도리공원에서 개최되는 ‘삿포로 오템 페스트’에서는 홋카이도와 삿포로를 대표하는 음식을 중심으로 특히 가을이 제철인 음식, 특정한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홋카이도 내 각 지역의 특징을



살린 라멘을 중심으로한 5 초메, 와인과 일본술을 즐길 수 있는 7 초메, 홋카이도의 고기를 테마로 한 10 초메 등, 각 초메마다 다른 분위기와 음식을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이 오템 페스트의 매력 중 하나입니다.

올해 오팀 페스트는 10 월 1 일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만, 이외에도 가을이 제철인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습니다. 삿포로 관광객들의 인기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식재료인 ‘연어알’ 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하는 9 월부터 제철을



맞이하러, 시장에서는 방금 막 만든 생연어알을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홋카이도의 태평양 연안부에서만 잡히는 ‘시샤모(바다빙어과)’ 도 10 월부터 잡을 수 있어, 싱싱한 시샤모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이 겨울을 위해 영양을 비축하는 가을은

사슴 등을 사용한 요리가 맛있는 계절이기도 하므로, 여러분의 식욕에 더욱 불을 지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삿포로의 겨울을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몸으로 꼭 즐겨보세요.

◆ 문의처

삿포로시 총무국 국제부 교류과

〒060-8611 삿포로시 주오구 기타 1 조 니시 2 초메

TEL : 011-211-2032、FAX : 011-218-5168

E-mail:kokusai@city.sapporo.jp